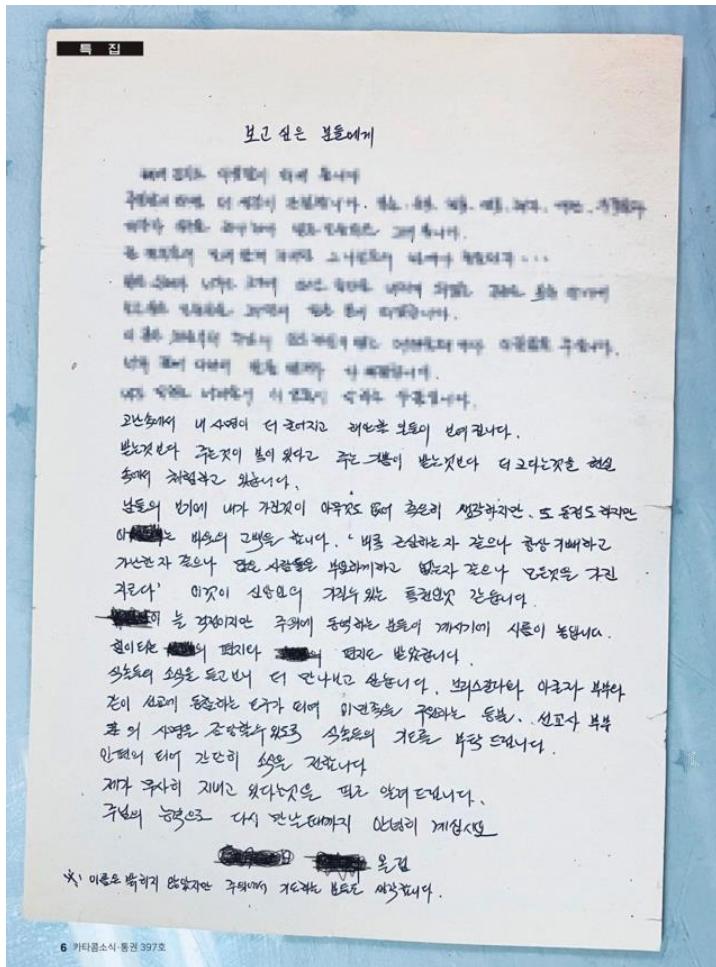


## 모퉁이돌선교회 기도제목(9월13일 대면, 9월18일 온라인)

### <한자매의 편지> 한 번이라도 모여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의 주일날 모이는 것을 생각만 해도 오른쪽 갈비가 저러나고 숨이 꺾막히는 것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너무 만나고 싶고 말씀이 간절할 때는, 글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진정을 할 수가 없고, 소리 높이 웨칠 때도 없고,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로 씻어 내립니다. 아버지만이 제 마음을 아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흔들여 넘치게 채워 주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할 때마다 내 약함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한번이라도 모여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언니는 저의 안전을 위해서 아직은 참으라고 하는데 그때를 기다립니다....”

### <한부부의 편지> 고난 속에서 사명이 더 굳어지고 해야 할 일들이 보여집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주는 기쁨이 받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보기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측은히 생각하지만 또 동정도 하지만 나는 바울의 고백을 합니다. ‘비록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늘 걱정이지만 주위에 동역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시름이 놓입니다. 힘이 되는 000의 편지와 000의 편지도 받았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는 등불, 선교사 부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3절 “우리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으니 이는 너희 믿음을 위하여 너희를 강건하게 하고 격려함으로써 그 누구도 이 시련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하려 함이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세워진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 말씀처럼 시련 속에 한 번만이라도 함께 모여 소리내어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옵소서. 먼저는 북한 안에서 서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주께서 긍휼을 더하시고, 하루 속히 북한의 문이 열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자유로이 예배하는 복을 누리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모든 것을 가진 것이며 특권이라고 고백하는 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백성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사명을 부어 주시고, 닥친 험난한 난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북한 성도, 선교의 사명으로 복음전하는 북한성도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 아프면 마약부터, 북한 마약 오남용 심각



“북한 주민은 마약을 의료적 측면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마약을 쓰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다른 나라와 아주 다르고, 중독 치료와 예방 치료 체계가 북한은 너무 미비합니다. 학생들도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비어 있는 집에 들어가 학생들끼리 모여서 마약을 하곤 합니다.” 안경수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이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북한 주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으로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 경제난과 압제 속 자살 선택하는 북 주민



북한에서 최근 일반 주민과 군인의 자살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식량 부족이 지속되고 배급제가 거의 시행되지 않는 형편인데도 북한 당국은 기층 주민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인 장마당마저 틀어막고 수령유일지배체제의 유지 존속을 위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며 이상승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권에 의해 압제당하는 애꿎은 북한 주민이 극단적인 경제적 궁핍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 주민 모두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훈련시켜 우리가 불경건과 세속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이 시대에서 단정하고 올바르게 경건한 삶을 살며 그 복된 소망과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현현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어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그의 친 백성으로 삼으려 하심이다” 디도서 2 장 11~14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처럼 소망 없는 자를 복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마약을 의약품으로 또한 향락 추구의 도구로 오남용하는 북한 주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도둑이 오는 것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하려 함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이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그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0~15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자살 사건이 빈발하는 북한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민을 자살로 내모는 김씨 세습정권의 사악한 통치술과 악행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게 하시고, 북한 주민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움츠러 든 신앙과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북한 주민 모두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온 땅에 구원자 되신 주를 간절히 부르며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국으로 돌아온 뒤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000이라는 녀자가 영양실조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살아난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나약했던 신앙을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책을 보았다는 죄로 온 한 여성은 아직 감옥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죄가 되어 3일이 멀다 하고 죽어 나가는 시체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가면 절반 죽어 나온다고 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곳에서 새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 주신 주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중국에 나왔다가 고향에 돌아간 북한 성도가 1년 만에 보내온 편지이다. 북한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내 승리하도록 기도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내 이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 박해하며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니 너희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이 일이 결국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되리라... 너희의 어떤 대적도 너희에게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임이라” 누가복음 21장 12-13, 15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과 같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홀로 외로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갇힌 자들이 놓임을 받아 생명이 보존되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당국의 악행이 즉각 그쳐지도록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북녘 성도와 함께 예배합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한남동교회에서 북녘 성도와 함께하는 “광야의 소리” 방송 예배가 드리진다. 북한에서는 라디오로, 남한에서는 모여서, 해외에서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한다. 광야의 소리 방송 예배는 녹음되어 15년 동안 라디오로 주일 새벽과 저녁에 북한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얼마전부터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다. 광야의 소리 방송 예배가 매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예배가 북한에 전파를 통해 나갈 때, 북한 땅을 진동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 남북한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령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요한복음 4장 23-24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북녘 성도와 함께 드리는 광야의 소리 방송 예배를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방송으로 북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큰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목요일 정오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메마른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영적 파장이 그대로 말씀에 갈한 북녘 땅에 부어져 숨죽이며 예배하는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과 골수를 찢러 쪼개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 브로커, 탈북민 가족 등에 통화 도청 및 녹음 강화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 달라는 탈북민의 의뢰를 처리하던 브로커 A 씨가 보위부 통신 도청에 걸려 체포됐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보위원들은 A 씨가 탈북민 가족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을 들이대서 잡아떨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한다. 북한 보위 기관은 송금 브로커, 탈북민 가족 등을 중심으로 도청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도 통신 도청을 감행하고 있다. 주민을 압박하는 보위원들의 악행이 멈춰지고, 북한을 향한 말씀 배달과 구제 사역이 방해받지 않기를 기도한다.

**“너는 가난한 자들을 그들이 가난하다는 리유로 착취하지 말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성문에서 억압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송사를 변호하시고 그들을 탈취하는 자의 생명을 탈취하실 것임이라”** 잠언 22장 22~23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처럼 북한 주민의 송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탈북민 가족과 브로커 등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녹음해서 압박, 갈취하는 북한 보위 기관의 악한 행태를 멈춰 주옵소서. 또한 이들의 도청으로 인해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일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북한 백성을 구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김일성 호칭인 '수령' 김정은에 사용'



북한 매체가 김정은을 '수령' 또는 '아버이'로 호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수령 앞에는 '인민의', '결출한', '탁월한' 같은 수식어가 붙고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수령'이라는 표현도 쓰인다. 김정은 우상화 작업은 2022년을 기해 절정을 이뤘다. 지난해 4월 열린 김정은 집권 1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회의장에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아닌 김정은의 초상이 내걸렸다. 김정은 우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만 북녘 땅에서 높임 받기를 기도한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이지요 여호와와 유일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오직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를 둘러싼 모든 민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신명기 6장 4~5, 13~14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북한을 덮고 있는 우상의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기 원합니다. 김씨 일가를 높이는 모든 우상숭배의 행위는 사라지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경외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